

## 28 ● 금형회사 근로자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

성별	남성	나이	45세	직종	금형업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### 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4년 6월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로 불량품 체크업무를 하다가 2011년 7월 ‘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(양측)’을 진단받았다.

### 2 작업환경

○○○은 1996년부터 동종 업종에서 근무하였다. □사업장에서 주 업무는 기계 세팅, 기계검사, 불량검사 등이다. 현재 사업장의 프레스 기계는 총 13대이고 과거 기계가 많을 때는 20대까지 있었다고 한다. 사업주에 의하면 기계 가동률은 보통 50% 정도라고 한다. 사업장 방문 당시 기계는 총 6대가 가동 중이었다. sound level meter로 공장 내부 소음을 측정하였을 때, 등가소음레벨이 약 95dB에 달했으며 dosimeter로 개인 소음 측정 시에는 약 88dB에 이르렀다.

### 3 의학적 소견

2011년 순음청력 검사상 평균청력 손실이 76/76dB (오른쪽/왼쪽)로 확인되었다. 동료 근로자들은 과거부터 난청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○○○은 2010년경부터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하고, 가족(형수)은 4~5년 전(2006~2007년)부터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한다.

### 4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소음이 발생하는 프레스 사업장에서 10여년간 근무하였고, 2011년에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. ○○○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현재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 금속제품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10여년간 프레스 업무 등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, 난청의 양상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